

보도시점 2026. 8. 26.(수) 10:00 배포 2026. 8. 26.(수) 10:00

국립극장, 오감으로 즐기는 예술 나들이 '아트 인 시리즈' 개최

- 2021년부터 15만여 명 방문,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국립극장 대표 야외문화축제
- 창작·계절·농부·미식 매주 다른 주제의 시장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 어우러져

국립극장(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은 9월과 10월 매주 토요일, 해오름극장 앞 문화광장에서 야외 문화축제 '아트 인 시리즈'를 개최한다. 일상 속 예술 장터를 표방하며 기획된 이 행사는 2021년 '아트 인 마르셰'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다양한 협업을 통해 꾸준히 외연을 확장하며 지난 5년간 누적 방문객 15만여 명을 기록했다.

2026년 '아트 인 시리즈'는 창작시장, 계절시장, 농부시장, 미식시장으로 매주 주제를 달리해 열리며, 주제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악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첫째 주(9월 5일, 10월 3일)에는 문화예술 기획 브랜드 '에이언노운(a.unknown)'과 함께하는 창작시장 '아트 인 굿즈'가 열린다.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에이언노운'은 굿즈 마켓에 미술 전시 코너를 결합한 아트마켓형 행사를 선보인다. 미술 전시 부스마다 작가가 상주하며 본인의 원화 혹은 프린트 작업물을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이 외에 창작 오브제, 문구, 주얼리, 그래픽, 전통 기반의 굿즈 등 신선하고 참신한 다양한 물품을 만날 수 있다. 워크숍 프로그램 '바람에 쓰는 한글 - 한글의 선, 마음의 여백'에서는 부채 위에 나만의 한글을 써 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무대에서는 계절과 어울리는 뮤지션들의 연주도 펼쳐진다. 9월에는 밴드 '해파'와 싱어송라이터 '다시한번말하자면'이, 10월에는 싱어송라이터 '한림'과 '구구'가 무대에 오른다.

▲ 둘째 주(9월 12일, 10월 10일)에는 계절 시장 '아트 인 피크닉'이 열린다. 생태적인 삶의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뱀새 기획'과 함께, 자연에 더욱 가까워지는 '소풍' 같은 시장을 콘셉트로 남녀노소 반려동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장을 마련한다.

'숲과 자연' '좋은 하루' '계절식탁' 세 가지 테마 아래 개성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숲 산책, 야외요가, 손바느질 수선 워크숍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우리 동네 나무를 만나고 기록하는 '시티트리클럽'의 캠페인

프로젝트, 독립서점 호수책장 김자호 대표의 강연 프로그램 ‘봄에게 가을에게’도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밴드 ‘이고도’와 싱어송라이터 ‘장키키’가, 10월에는 밴드 ‘추승엽’과 ‘나인티스칠드런’이 무대를 꾸민다.

▲ 셋째 주(9월 19일, 10월 17일)에는 ‘농부시장 마르쉐’와 함께 농부 시장 ‘아트 인 마르쉐’를 진행한다. 농부팀·요리팀·수공예팀으로 나뉘어 약 65팀이 참여해 신선한 제철 농산물과 빵·치즈·음료 등의 다양한 먹거리, 각종 공예품을 선보인다. 출점 농가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워크숍도 열린다. 9월에는 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건강한 작물을 키우는 경남 지역 해든농장의 자연농 포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장의 분위기를 돋우는 국악 기반 아티스트들과 국립창극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9월에는 기악 그룹 ‘시오트’와 ‘야금야금’, 10월에는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박두리, 지명인)과 ‘창티크’가 무대에 오른다.

▲ 넷째 주(9월 26일, 10월 24일)에는 커피 문화 커뮤니티 ‘메쉬커피’와 함께 만드는 미식 시장 ‘아트 인 커피’가 열린다. 품질 좋은 커피를 엄선해 자기만의 로스팅과 스타일로 각자의 지역에서 커피 문화를 만들어 가는 로스터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커피 문화를 풍성하게 해주는 먹거리와 공예품, 도서 관련 업체까지 총 50여 팀이 시장을 풍성하게 꾸민다. ‘커피시음티켓’ ‘커피미식투어’ ‘아이스 홈브루잉’ 등 커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마하키친’은 신소영 요리사의 미식토크 ‘맛으로 기억하는 땅, 팔레스타인’을 통해 스페인과 팔레스타인의 생생한 맛을 전한다.

커피와 어우러지는 블루스 밴드와 재즈 보컬리스트의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블루스 밴드 ‘최항석과 부기몬스터’와 재즈 보컬리스트 ‘강윤미’가, 10월에는 블루스 밴드 ‘하현진 밴드’와 재즈 보컬리스트 ‘문미향’이 공연을 펼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 02-2280-4114

붙임1. 2026 국립극장 야외 문화축제 ‘아트 인 시리즈’ 개요

붙임2. 2026 국립극장 야외 문화축제 ‘아트 인 시리즈’ 공연팀 소개

담당 부서	국립극장 홍보팀 공연기획팀	책임자	언론담당	정선영 (02-2280-5826)
		담당자	사업담당	박세미 (02-2280-4287)

	행 사 명	2026 국립극장 야외 문화축제 '아트 인 시리즈'	
	행사일시	창작 시장 <아트 인 굿즈>	2026.9.5.(토) / 10.3.(토) 11:00~16:00
		계절 시장 <아트 인 피크닉>	2026.9.12.(토) / 10.10.(토) 11:00~16:00
		농부 시장 <아트 인 마르셰>	2026.9.19.(토) / 10.17.(토) 11:00~16:00
		미식 시장 <아트 인 커피>	2026.9.26.(토) / 10.24.(토) 11:00~16:00
	행사장소	국립극장 문화광장(해오름극장 앞)	
	주 최	국립극장	
	공동주관	국립극장, 에이언노운, 뱀새기획, 농부시장 마르셰, 메쉬커피	
	문 의	국립극장 02-2280-4114 www.ntok.go.kr	

'아트 인 시리즈' 공동주관 단체

에이언노운	에이언노운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과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전시와 아트마켓을 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 기획 브랜드다. 신진 작가와 독립 창작자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람객에게는 일상 속에서 예술과 창작물을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울 및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와 굿즈마켓 등 여러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이어오며, 창작자와 관람객의 접점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 예술 경험을 만들어가는 기획을 지속하고 있다.
뱀새기획	2023년 시작된 '뱀새기획'은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며, 마켓 기획·컨설팅, 콘텐츠 기획, 브랜딩, 지역 자원 조사 등 폭넓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획자 그룹이다. 자연과 지역, 사람을 잇는 지속 가능한 연결에 가치를 두고,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실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식물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특색 있는 마켓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농부시장 마르셰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셰'는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 작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농부시장 '마르셰@'의 운영 조직이다. 2012년 10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첫 장을 연 '마르셰@'은 단순한 물건의 교환을 넘어 사람과 관계, 대화가 살아있는 시장의 본질을 지향한다. 먹거리와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하며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연결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메쉬커피	2015년 성수동에서 시작된 '메쉬커피'는 로스터리 커피 바이자 지속 가능한 커피 문화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다.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건강한 관계망 구축에 집중한다. 커피를 매개로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커피와 연결된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2026 상반기 '아트 인 시리즈'

2026 창작 시장 <아트 인 굿즈>



해파

- 일시: 9월 5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문근영(보컬, 기타), 정수민(콘트라베이스), 송하균(키보드)

희망과 절망의 변증법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담백한 선율에 무심한 농담을 엮고, 느슨한 공기 속에 흐르는 우울의 정서는 마음 한구석을 할퀴다가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복잡함을 담아낸다. 2022년 첫 음반 <죽은 척하기>를 통해 얼터너티브, 팝, 재즈를 넘나드는 음악세계를 선보였다. 2026년 발표한 두 번째 음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예측을 비껴가는 미묘한 어긋남을 통해 정상성을 강제하는 사회를 풍자하며 환영의 시네마처럼 마음의 장면을 그린다.



다시한번말하자면

- 일시: 9월 5일 토요일 12시 / 15시
- 출연: 박윤희(보컬), 이강원(보컬)

소박한 우쿨렐레 선율 위에 삶의 가장 솔직한 고백을 엮어내는 싱어송라이터 듀오. 사람과 사람, 그 만남의 시작부터 끝자락까지. 그 무수한 궤적 속에서 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한다. 2020년 싱글 <장마>로 데뷔한 이후, 2022년 싱글 <카푸치노>, 2025년 싱글 <겨울로 가는 시간> 등을 발표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구

- 일시: 10월 3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김승혁(보컬, 건반), 곽준호(기타), 임종환(드럼), 정지호(베이스), 강울구(기타)

구구는 국내 유수의 음악 쇼케이스와 경연 무대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2026 원콩쿨 우승, 2026 CJ 튜업 27기 쇼케이스 심사, 그 밖에도 제 21회 LG드림페스티벌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2024 해운대 대학가요제 본선 동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입증하였다. '99%는 제가 채울 테니, 나머지 1%는 여러분이 채워주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구구의 모든 공연은 관객과 함께 완성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림

- 일시: 10월 3일 토요일 오후 12시 / 15시
- 출연: 한림(보컬), 건반(정혜리), 기타(홍인수)

싱어송라이터 한림(Hanlim)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음색으로 일상의 장면들을 노래에 담아내는 아티스트다.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tvN, KBS, MBC 등 주요 드라마 OST의 작사·작곡·가창 작업으로 탄탄한 음악적 내공을 다져왔으며, Lo-fi R&B부터 발라드, Rock, 어쿠스틱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오고 있다. 최근 <한림(Hanlim) - 내가 하려는 말은>을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 매달 말 새로운 음원을 발매하는 '한달에 한림' 프로젝트를 통해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6 계절 시장 <아트 인 피크닉>



이고도

· 일시: 9월 12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이고도(보컬), 류준상(기타), 최대영(베이스), 김준호(드럼), 김동연(피아노)

일상 속 외면하고 싶은 마음들을 솔직한 언어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솔직한 가사와 덩덤한 목소리로 흔들리며 나아가는 삶을 그린다. 2022년 <겨울밤>을 시작으로 <Mouse> <우리 같은 사람들> 등 구체적으로 다양한 주제 의식의 노래들을 발매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키키

· 일시: 9월 12일 토요일 12시 / 15시

· 출연: 장키키(보컬), 준까지(어쿠스틱 기타), 염수현(피아노)

한여름과 닮아있는 우리들의 청춘을 노래한다. 록 기반 사운드 위에 감정선을 더한 음악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뮤즈온(Muse on)' 아티스트로 선정되었다. <여름 레시피> <피를 닮은 시> 등 장키키만의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곡들을 발매하며 라이징 뮤지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추승엽

· 일시: 10월 10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추승엽(보컬), 최원영(피아노)

독보적인 음색과 폭발적인 라이브 에너지, 오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보컬리스트. JTBC<싱어게인3>에 59호 가수로 출연해 강렬한 무대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선보이며 최종 Top7에 진출했다. 2008년 밴드 악통(ACHTUNG)으로 공식 데뷔한 이후, 꾸준한 앨범활동과 공연을 이어왔으며 방송·콘서트·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유의 거칠고 힘 있는 보컬부터 감성적인 어쿠스틱 사운드까지 폭넓게 소화하며, 록과 팝을 기반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나인티스칠드런

· 일시: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 / 15시

· 출연: 기연(보컬·기타), 강성실(드럼), 정준화(베이스), 왕태현(일렉기타), 한영지(건반)

나인티스칠드런(90's Children)은 포크록을 기반으로 청춘과 낭만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밴드이다. 싱어송라이터 기연을 중심으로 결성된 나인티스칠드런은 서정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결성된 신예 밴드이지만, 각 멤버가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커리어가 하나로 어우러져 뚜렷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포크록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청춘의 순간과 낭만의 정서를 진솔하게 전하는 밴드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26 농부 시장 <아트 인 마르쉐>



시오트

- 일시: 9월 19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지쿠(프로듀서·멀티악기 연주), 박한빈(피아노·보컬), 이유림(가야금)

한글 자음 'ㅅ'의 형상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세 점에서 출발한 점이 한 지점에 모이듯, 대중음악·재즈·국악이라는 서로 다른 세 장르의 중심에 선 세 뮤지션이 만나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음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5년 데뷔 이후 1년만에 21곡을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각 작품마다 국악의 정서를 바탕으로 재즈, 일렉트로닉, 대중음악적 요소를 결합하며 팀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했다.



야금야금

- 일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 15시
- 출연: 오현지(가야금), 윤현명(피리, 기타), 정수연(첼로)

가야금 크리에이터이자 연주자인 야금야금은 25현 가야금으로 K-POP과 POP, 창작곡을 넘나들며 국악의 문턱을 낮추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다. 익숙한 대중음악을 가야금 고유의 울림으로 재해석하여 대중과 깊게 호흡하는 무대를 완성한다.

세르비아, 엘살바도르, UAE,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 주요 페스티벌 무대를 누비며 '함께 즐기는 국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소셜미디어에서 30만 구독자를 기록하며 대중성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융합 아티스트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창티크

- 일시: 10월 17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이창현(작·편곡, 피아노&타악), 진미림(가야금), 하동민(대금)
이민후(전통타악), 박서온(소리)



창티크는 노래할 창(唱)과 엔티크(antique)의 합성어로 고유의 소리를 노래하고 연주하다라는 슬로건을 담고 있다. 국악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이창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를 진행해왔다. 이와 더불어 창작 활동을 통해 국악 브랜드로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연희, 판소리, 민요, 산조 등 음악적 소재와 한국적인 이야기들을 담아 편하고 쉽게 들려주며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아트 인 마르쉐>에서는 소리꾼 박서온과 함께 무대를 꾸민다.

국립창극단(청년교육단원)

- 일시: 10월 17일 오후 12시 / 15시
- 출연: 박두리(소리꾼), 지명인(소리꾼), 박나해(거문고), 박서온(피리), 정정민(기타), 이주형(베이스), 이영우(드럼), 유수인(건반)



국립창극단 청년교육단원 박두리와 지명인은 젊은 소리꾼으로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밴드 사운드를 접목한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마주하는 고민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을 음악에 담아 관객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자 한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 청춘의 에너지와 공감을 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26 미식 시장 <아트 인 커피>



최항석과 부기몬스터

- 일시: 9월 26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최항석(보컬·기타), 이효주(키보드), 김범식(베이스), 윤석용(드럼), 이인규(기타), 정혜원(트럼본)

한국 블루스 소사이어티의 대표 최항석이 이끄는 밴드로, 2018년 1집 <Good Man But Blues Man>으로 데뷔, 올해 4집 <Human Scramble>을 발표했다. 소울 풀한 보컬과 기타 연주로 멤피스 스타일의 컨템퍼러리 블루스를 들려준다.



강윤미

- 일시: 9월 26일 토요일 오후 12시 / 15시
- 출연: 강윤미(보컬·피아노), 박상연(기타)

강윤미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클래식 피아노와 재즈 보컬을 전공했으며, 깊이 있는 즉흥성과 섬세한 해석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오고 있다. 2011년 네덜란드 재즈보컬리스트 콩쿠르(Netherlands Jazz Vocalist Competition)에서 2위에 입상했으며, 2026년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베스트 재즈보컬 앨범 부문 후보에 선정되었다. 미국 기타리스트 존 스토웰(John Stowell)과 듀오 앨범 <A Timeless Place>를 발표했으며, 국내외 주요 재즈 페스티벌과 공연장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헌진 밴드

- 일시: 10월 24일 토요일 11시 / 14시
- 출연: 하헌진(보컬·기타), 구교진(베이스), 오준석(드럼)

하헌진은 2009년 데뷔해 줄곧 블루스를 노래해온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다. 청년의 비루한 삶과 현실을 한국어 가사로 위트있게 표현해냈다는 평을 받으며, 국내에 드문 전통 델타 블루스 기반의 연주자로서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이번 공연은 하헌진, 구교진, 오준석 3인조 라인업으로 진행된다. 세 사람이 맞춰온 탄탄한 리듬과 연주의 호흡으로 한층 밀도 있고 완성도 높은 트리오 블루스 라이브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미향

- 일시: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 15시
- 출연: 문미향(보컬), 나영찬(기타), 김대호(베이스)

달빛처럼 아름다운 목소리의 보컬리스트 문미향은 현재 한국 재즈씬의 중심에서 밴드 리더로서 수많은 공연을 치러내고 있다.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 사라 본(Sarah Vaughan) 등 전통적인 재즈보컬의 계보를 이어오며 그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온 그녀는 2022년 재즈피플 라이징스타 보컬부문에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는 1집 정규 앨범 <I Wished On The Moon>을 발매와 동시에 2024년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 '최우수 재즈 보컬 음반상'에 노미네이트되며 무궁무진한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었다.